

선협, 선박금융 활성화와 해운경영환경 개선 주력 2011년 정기총회에서 김영민 사장 수석부회장 올라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올해 중점사업 추진방향을 선박금융활성화와 대량화물에 대한 국적선 장기수송비중 확대, 그리고 정기항로 안정화 도모 등 해운경영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1월 14일 대회의실에서 외항해운기업 CEO 및 임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 및 예산 집행내용을 승인한 뒤 올해 주요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이날 정기이사회에 이어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협회 수석부회장에 김영민 한진해운 사장을 선임하는 한편, 지난해 회장단에서 자진탈퇴한 바

있는 황규호 SK해운 사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이진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해운경기는 선종별로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선박 개발문제,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 설치 등 해양환경 보전을 둘러싼 국제규범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금년에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해양부 광인섭 물류항만실장은 지사를 통해 “최근 해운경기 지수를 살펴보면 해운위기를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해운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해운금융공사 설립, 선박금융 투자 활성화 등 안정적 금융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자원운송사업 등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올해 중점사업 추진 기본방향을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및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 선박금융 보증제도 활성화, 해운·

금융업계간 협력관계 증진 등을 통해 선진 선박금융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리스회계기준 개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해운경영환경 개선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양 및 근해선사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대형 및 중견선사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량화물에 대해 국적선사 장기수송물량 확대를 위해 선화주 상생을 위한 표준수익모델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노사합의를 통한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 선원소득세 비과세 확대와 함께 외국인해기사 신규인력을 개발하는 등 중장기 선원수급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회기여사업 발굴시행을 통해 해운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고, 해운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채널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해운시황 분석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해운불황의 여파로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금진해운을 비롯하여 냅툰마린, 노스우드스팀쉽, 대원마리타임, 동화실업, 삼탄, 선우상선, 성제해운, 씨엔에프로직스, 오션마리타임, 유니마린, 지오리드오션쉬핑 등 12개 외항화물운송사업체를 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퇴회조치했다. 이로써 한국선주협회 회원사는 181개사로 줄었다.

[한국선주협회 임원현황]

	협회직위	회사명	성명
1	회 장	대한해운	이진방
2	수석부회장	한진해운	김영민
3	부 회 장	고려해운	박정석
4	"	SK해운	황규호
5	"	STX Pan Ocean	이종철
6	"	KSS해운	윤장희
7	"	현대상선	김성만
8	"	흥아해운	이운재
9	이사	남성해운	서명천
10	"	대보인터내셔널쉬핑	김창중
11	"	두양상선	조동현
12	"	범주해운	이상복
13	"	유코카캐리어스	안예빈양
14	"	장금상선	정태순
15	"	천경해운	김지수
16	"	태영상선	박영안
17	"	창명해운	이경재
18	"	신성해운	박영규
19	"	중앙상선	김지영
20	"	동아탱커	이종명
21	"	대림코퍼레이션	기익석
22	"	선협	김영무
23	감사	우양상선	채영길
24	"	진양해운	홍승두

교통물류·해양산업 경제인 합동 신년인사회 성료 육해공 수송산업 CEO, 관련단체장 들 500여명 참석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이진방 한국선주협 회장)와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회장 박복규)는 1월 11일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2011년 교통물류·해양산업 경제인 합동 신년인사회'를 갖고 국가경제 발전에 앞장서기로 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교통물류·해양산업 경제인들의 화합과 협력, 그리고 동반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육·해·공 수송산업계 CEO들과 국토해양부 차관, 국회의원, 관련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를 주관한 이진방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해운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됐으

나 2011년은 유럽재정위기, 중국 긴축정책, 유가폭등 등의 불확실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친환경 선박개발, 연료규제 강화 등 국제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올 한해는 녹색성장, 내실경영에 힘쓰며 해운금융 설립, 해운경쟁력 강화, 선원 소득 비과세 혜택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해양부 김희국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5위 해운국가 등극, 해외 자원개발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물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고부가가치 육성 등 신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 송광호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G20 성료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또한 세계 8위 GDP 1조 달러의 경제 성장했다”며, 그 성과 달성의 중심에 교통물류 및 해양산업 종사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정보위원회 권영세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의 조선 1위, 해운 5위라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3대 해운강국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좋은 법 제정을 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내실을 튼튼히 하고, 아울러 토끼와 같이 소통을 잘 하고 증명하며 높이 뛰어 성장을 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상은 의원은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므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물류업계가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해운과 물류 산업이 대한민국의 선봉자가 되어 줄 것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경제인 신년인사회에는 정부 측에서 국토해양부 김희국 차관을 비롯하여 광인섭 물류항만실장, 전기정 해운정책관,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강동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권영세 정보위원장, 장광근 의원, 박상은 의원, 송영선 의원등이 참석했다.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에서는 이진방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항만물류협회 김진곤 회장,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방동식 위원장, 한국해사문제연구

소 박현규 이사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황규호 총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학소 원장, 한국해기사협회 민흥기 회장, 한국선급 오공균 회장,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장갑순 이사장, 한국도선사협회 송정규 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강신길 원장, 항로표지기술협회 이선준 이사장, 선박투자운용회사협의회 박동호 회장, 한국국제물류협회 강성린 회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용우 이사장, 선박안전기술공단 민경태 이사장, 한국검수검정협회 이상철회장, 바다살리기운동본부 정태순 총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박태원 회장, 한국항만협회 조남일 회장,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김종의 원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김용태 이사장, 황해객화선사협회 한준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해운업계에서는 한국선주협회 김영민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STX팬오션 이종철 부회장, 고려해운 박정석 사장, 창명해운 이경재 회장, 태영상선 박영안 사장,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사장, 진양해운 홍승두 사장, 현대상선 이석희 사장, 대보인터내셔널쉬핑 김창중 회장, 이재균 해외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통물류산업계에서는 교통단체총연합회 박복규 회장을 비롯하여 안철진 부회장, 신동재 부회장, 교통안전공단 정상호 이사장, 한국공항공사 성시철 사장, 현대자동차 김충호 부사장, 대한항공 서용원 부사장, 아시아나항공 류광희 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이건태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해총·선협 사랑의 쌀 4,000Kg 전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속



지난 1월 21일과 28일 양일간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설 명절을 맞아 '사랑의 쌀' 4,000kg을 인천 동구 및 서울 동대문구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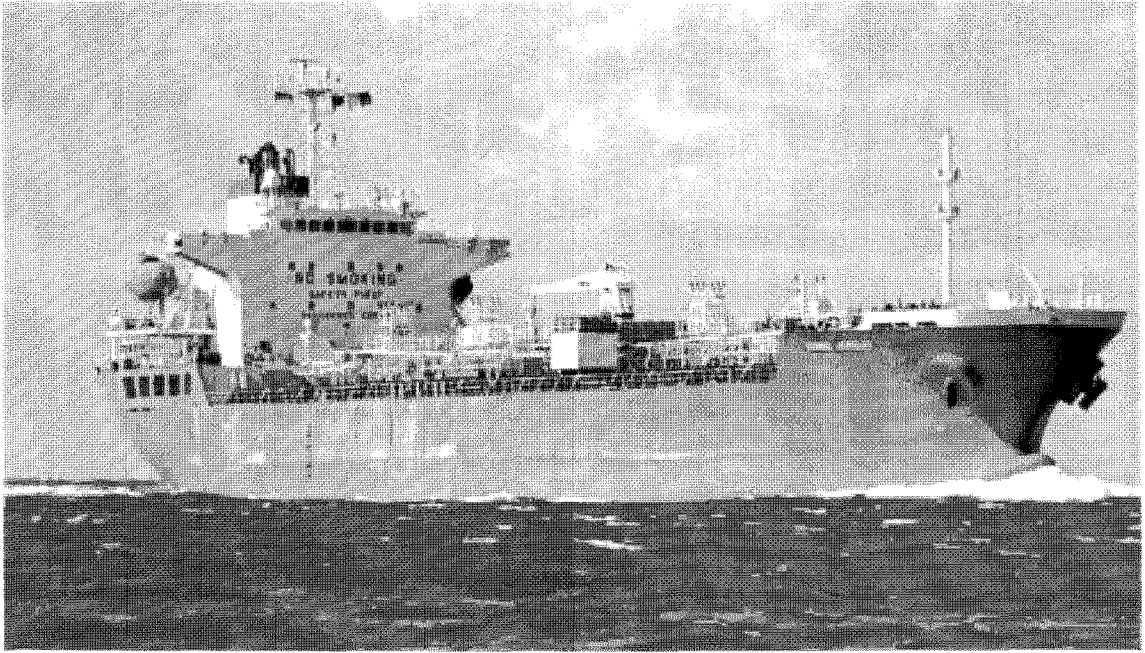
총연합회와 한국선주협회는 지난해부터 연초에 개최하는 신년인사회에서 화환 대신 쌀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눠주는 나눔 행사를 가져왔다. 이번에 전달한 쌀은 20kg짜리 포장쌀 200포대와 라면 100박스로 1,000만원 상당이다.

지난 1월21일 인천 동구청에서 진행된 쌀 전달식에는 박상은 의원과 동구청장등 20여명

이 참석하였으며 28일 동대문구에서 진행된 쌀 전달식에는 한국선주협회 임직원과 장광근 의원실, 동대문구의원 등 30여명이 동대문구를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직접 전달했다, 총연합회와 한국선주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성공 최영함을 통한 아덴만 여명작전 통해 해적 8명 사살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해운 소속 화학물질 운반선인 '삼호주얼리호'를 피랍된 지 6일만인 지난 1월 21일 선원 전원을 구출하는데 성공했다.

피랍 선박의 선원들은 전원 무사하고 선장 1명이 부상당했다. 해적 13명 가운데 8명은 사살되고 5명은 생포됐으며, 청해부대의 소속 요원중 소령 1명, 상사 1명, 하사 1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상처를 입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삼호주얼리호가 해적에게 납치된 지 3일후인 1월 17일 국내 언론사에 '엠바고'(보도 시정제한)를 전제로 주얼리호 구출작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은 삼호드림호에 이어 삼호주얼리호까지

납치된데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8일에는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까지 이미 잡혔었던 외국출장까지 취소하면서 소말리아 지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사장단과 긴급 해적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는데는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18일 해적 공격설이 나돌던 당시 업계와 기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구출과정에서 선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야당과 좌파세력의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출작전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같은 정치적 역학관계에 개의치않고 전격적으로 구출작전을 지시했고, 21명의 선원을 모두 무사하게 구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

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삼호해운 소속의 삼호주얼리호(1만t급)는 지난 1월 15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스리랑카로 이동하던 중 오만과 인도 사이 인도양 북부의 아라비아해 입구에서 피랍됐다.

화학제품 1만6천t을 탑재한 이 선박에는 한국인 8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미얀마인 11명 등 총 21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1월 16일 에티오피아 지부티항에 정박 중이던 청해부대의 주력함 최영함이 긴급 출동해 18일 오전 4시 피랍해역인 이라비아해 입구에 도착했으며, 한국 정부는 해적과의 협상은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선원 구조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최영함이 작전개시 시기를 저울질하던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18일 오후 8시 삼호주얼리호를 피랍한 해적이 5노티컬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몽골 선박을 추가 피랍하기 위해 해적 자선을 하선한 것이다.

최영함은 십수명의 해적들이 둘로 분리된 틈을 타 링스헬기와 고속단정을 동원한 작전에 돌입했다. 링스헬기는 자선에 탑승한 해적에 경고 및 위협 사격을 가했고 총격을 받은 해적 수명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

특수전 요원(UDT/SEAL)이 탑승한 고속단정은 삼호주얼리호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총격을 받고 후퇴했다. 이 과정에서 장병 3명이 파편상을 입고 오만의 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총격전으로 최영함은 해적 자선 2척 중 1척, AK소총 3척, 사다리 등을 노획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20분에는 연합 해군사령부에 속한 오만 함정 1척이 작전에 참여했다. 연합 해군은 언제든지 해상 초계기(P-3C)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선장의 기지로 정선해 있던 삼호주얼리호가 19일

11시40분 3노트(1노트=1.8km)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오후 1시20분에는 소말리아 방향인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6노트의 속도로 항해하기 시작했다.

청해부대는 해적들이 삼호주얼리호를 끌고 소말리아 영해로 들어가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격하기 시작했으며, 선원들의 안전은 삼호해운과 선원들의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했다.

최영함은 2노티컬마일 정도의 거리로 삼호주얼리호를 쫓아가면서 투항 권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처음에는 영어로 경고 방송을 하다가 소말리아어로도 방송을 시도했다.

해적들이 본거지로 돌아가기 전에 구출 작전을 끝내야 하는 청해부대는 다시 작전시기를 저울질했으며, 계속 시간을 끌면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청해부대는 21일 오전 5시 구출 작전에 돌입했다.

고속단정으로 삼호주얼리호에 진입한 특수전 요원들은 총격전 끝에 오후 3시쯤 해적들을 제압하고 억류돼 있던 선원들을 모두 구출하는데 성공했다.

구출과정에서 선장이 복부에 총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면 장병과 선원 중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선주협회 승진인사 단행 조봉기 부장 이사 승진 등 4명 인사 단행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1월20일부로 임직원 정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사 : 해무팀장 조봉기

△부장 : 총무팀 정위섭

△차장 : 해무팀 김세현, 업무

팀 원민호(신규채용)

국내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개정

2011년부터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폐지 방침 마련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업계의 감면요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주요 이유로 하여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는 1996년 이후 항만시설 사용료 기본요율의 인상 없이 감면제만을 확대한 결과 국가수입 감소, 항비감면 경쟁유발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그 결과 국가재정 건전화 및 저비용 의존 항만체질 개선을 위하여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와 관련 평택·당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기존 컨테이너 항만, 국제카훼리선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폐지기로 결정하였다.

수출화물의 출항료는 2011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이 일부 개정되었다.

다음은 동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이다.

평택·당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기존 컨테이너 항만, 국제카훼리선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수출화물의 출항료는 '11년부터 폐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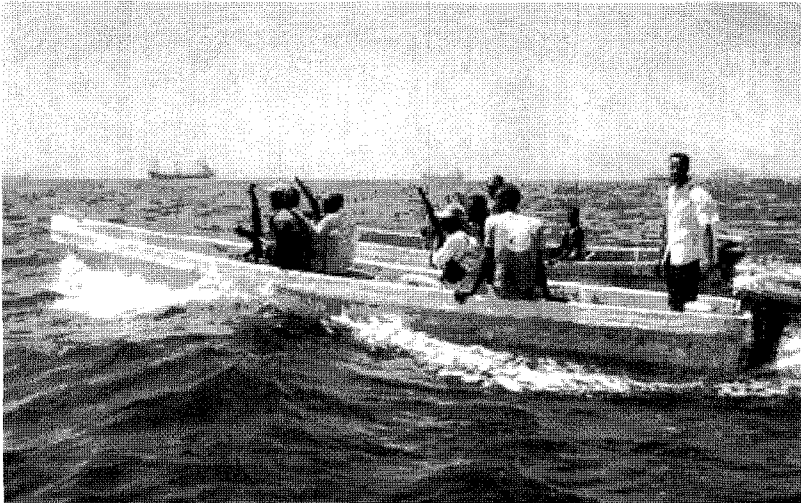
또한 2011.10월 개정 예정인 경인항 등 신설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 조기 활성화 차원에서,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교통」지원 차원에서 현행 감면율을 일정기간 유지 후 단계적 축소방안을 재검토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사전예측이 가능한 항만부지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에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사용료 선납제를 도입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고지금액의 최저액(2,000원)을 설정, 고지서 발행관련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이후
기존 컨테이너 항만				
• 광양항				
- 부산항(동시기항)	100%	폐지	-	-
- 광양항	100%	100%	70%	50%('14년 폐지)
• 목포신항	75%	50%	30%	폐지
• 평택당진항 등 기타 항만	50%	30%	폐지	-
국제카훼리	50%	30%	20%	폐지
수출화물 출항료	30%	폐지	-	-

선협, 무장 보안서비스 공동구매 추진 척당 4~6만달러에 이르는 보안비용 절감 효과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인도양 통항 선사 중 무장 보안 서비스를 공동구매할 의사가 있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현행보다 30% 정도 할인된 요율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과 2010년도의 보안요원 탑승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양 통항선박 280척 중 13%인 35척의 선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최근 아덴만 해역을 중심으로 인도양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장보안서비스 공동구매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 정부는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인도양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행정지도를 펴고 있다.

특히 해적들의 목표물이 되고 있는 선속 15노트 이하에 건현(수면에서의 갑판높이) 8미터 이하의 취약선박에 대해서는 보안요원 탑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인도양을 통항하는 선사들은 개별적으로 보안서비스업체와 접촉하여 구간 및 요율을 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통상 4만~6만달러에 달하는 보안비용으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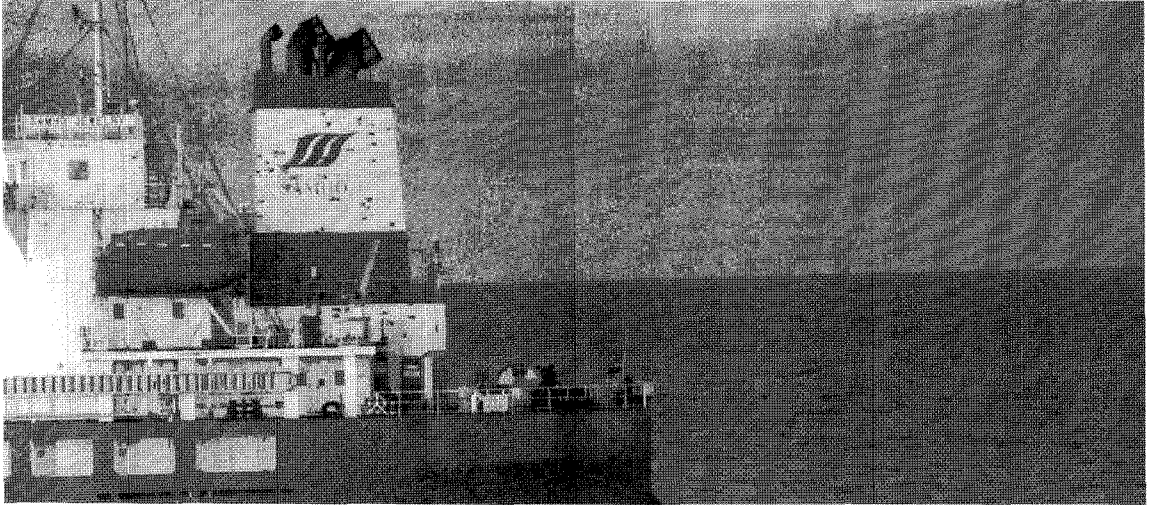
박이 보안요원을 85회 탑승시킨 바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보안서비스 공동구매를 통해 30% 할인된 요율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다 많은 선사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해상보안서비스 업체는 쉴드컨설팅, ARX-ISSG, M&M, G4S Secure Solutions, Raven Korean Task Force 등이며 서비스 구간과 요율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공동구매 선정 방식은 선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한 후 서비스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와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올 상반기 동안 선사의 자율적인 보안요원 탑승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안요원 탑승에 관한 법제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제민간해운단체, 한국 성공적인 해적퇴치 축하 삼호주얼리호 인질구출 작전성공에 대해 축하 표명



국제민간해운단체인 BIMCO, ICS, INTERCARGO와 INTERTANKO는 최근 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 해군들의 성공적인 해적퇴치에 대해 공식적인 축하를 표명하였다. 특히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던 케미컬탱커선 삼호주얼리호의 성공적인 인질구출 작전에 대해 축하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BIMCO에서 발표한 공식입장의 주요내용이다.

우리는 해적 피랍으로부터 풀려난 삼호 주얼리호와 Bunga호의 인질 구출을 위해 양 정부가 보여준 용감하고 특별한 활동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

또한 삼호주얼리호의 경우 소수의 부상을 제외한 전 선원의 안전한 귀환을 기쁘게 생각하고 부상을 당한 석선장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해적들의 선박 납치 형태 및 방법은 급변하고 있다.

지난 7개월간 총 30척, 700여명의 선원들이 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해적들의 방법 또

한 진화해가고 있다.

해적들은 대부분 모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피랍한 상선을 모션으로 사용하여 아덴만을 지나 아라비아해와 인도양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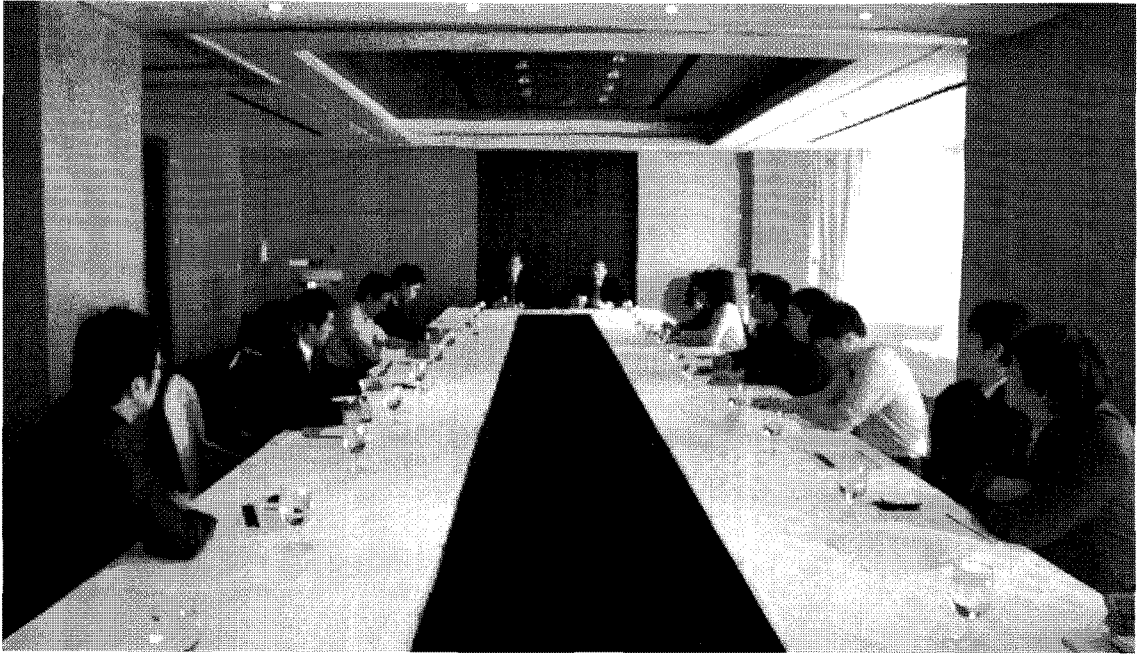
상선을 공격하는 방법 또한 강화되어 대부분이 총기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선원들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해적들이 동 항로를 점유하여 해상운송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세계 원유수송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동 항로가 해적들에 의해 막힌다면 세계 경제의 손실 비용이 70~1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 정부는 해군파병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들에게 해적퇴치를 위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협, 호주 뉴캐슬항 입항제도 세미나 개최 작년 6월1일부터 변경된 입항제도에 대한 경과설명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월13일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롯데호텔 36층 Astor Suite룸에서 지난해 6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뉴캐슬항만의 입항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시행경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Gary Webb 뉴캐슬항만청장은 그동안 변경된 입항제도를 잘 준수해준 선사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그동안의 실적 및 향후 항만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동 뉴캐슬 항만입항제도는 체선완화, 환경오염 방지와 장기 대기중인 선박의 사고예방을 위해 새로운 항만 입항제도를 도입하였고 뉴캐슬항은 과거 하루 평균 30~40척의 선박이 체선되어 항만 혼잡이 심한 항구였다.

동 입항제도에 변경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뉴캐슬항 입항 14일전 INM-C로 뉴캐슬 항만국에 입항보고를 실시해야 하며 입항보고 미 수행 시 페널티 적용을 받게된다.

둘째, 입항 10일전 뉴캐슬 항만국은 선박 대기위치와 예상 선적시간을 선박에 통보한다.

마지막을 선박은 뉴캐슬항내에서 48시간 이상 대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입항시간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Gary Webb 뉴캐슬 항만청장은 새로운 입항제도가 현재 잘 정착되어 대다수의 선사들이 이견없이 동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2010년 전 세계 선박금융규모 51% 급증

DnB NoR, 신디케이트 규모 기준 57억불로 1위 복귀

선박 금융 최대기업인 노르웨이의 DnB NOR은 행이 2010년 신디케이트 선박금융(syndicated shipping loans)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일본 미즈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위에 복귀했다.

DnB NOR 마케팅팀이 최근 발표한 '2010 Full Year Dealogic Shipping League Table'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DnB NOR이 작년에 취급한 선박금융건수는 39건, 거래금액은 57억 1400만달러에 달했다. 20개 은행중 점유율은 11%로 유일하게 두자리수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Nordea은행으로 46억 2200만달러를 기록했고, 이어 일본 미즈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35억 7600만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4~10

위 은행은 ▽ING가 19억 5,200만 달러(점유율 4%) ▽시티은행 16억 7900만달러 (3%) ▽BNP 파리바 11억 5600만달러(2%) ▽RBS 10억 7,200만 달러(2%) ▽JP볼간 10억 300만달러(2%)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9억 1,000만 달러 (2%동) ▽Danske 뱅크 9억 달러(2%)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11위는 HSBC로 8억 3,900만달러(점유율 1%), 일본 미즈호은행은 6억 9700만달러로 14위, 미즈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은 6억 4700만 달러로 16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20개 은행의 전체 선박금융건수와 금액은 188건/500억 5,700만달러로 집계됐으며, 2009년의 121건, 330억달러에 비해 50%이상 급증했다.

[세계 20대 신디케이트 선박금융 은행 현황]

순위	은행	거래금액 \$m	척수	점유율(%)
1	DnB NOR Bank	5,714	39	11
2	Nordea Bank	4,622	22	9
3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3,576	12	7
4	ING	1,952	9	4
5	Citi	1,679	7	3
6	BNP Paribas	1,156	4	2
7	RBS	1,072	4	2
8	JPMorgan	1,003	4	2
9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910	4	2
10	Danske Bank	900	2	2
11	HSBC	839	3	2
12	ABN AMRO Bank	763	6	2
13	Deutsche Bank	711	4	1
14	Mizuho	697	11	1
15	Svenska Handelsbanken	675	1	1
16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647	7	1
17	Credit Agricole CIB	645	5	1
18	Wells Fargo Securities	636	5	1
19	DZ Bank	500	2	1
20	State Bank of India	428	2	1
	Total	50,057	188	100